“먹고 싶은 대로 골라요”…아이들 웃게 한 ‘한 끼’

‘아름다운 사회 함께 만들어요’

(사)자비신행회 ‘도담도담 프로그램’

봉우리봉사단·도계스님 등 지원
학대피해 아동 30여명 한자리
‘맞춤형 샌드위치’·인형 등 받아
진모영 영화감독도 봉사자 참여

지난 29일 광주 (사)자비신행회가 학대피해 아동 30여명을 초청해 연 ‘도담도담 프로그램’에서 봉우리봉사단과 도계스님, 진모영 영화감독 등 자원봉사자들이 맞춤형 샌드위치와 선물 나눔 행사를 진행한 뒤 아동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조영권 기자

“저는 치킨샌드위치 먹고싶어요!”

지난 29일 오후 6시께 광주 동구 (사)자비신행회 나르샤홀에 모인 아이들은 저마다 손에 쥔 노란 주문지에 체크를 하며 환하게 웃었다.

치킨·돈가스·새우가스 등 메인 재료부터 치즈, 채소, 음료까지 직접 고르는 ‘맞춤형 샌드위치’가 이날 행사의 시작이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사)자비신행회와 봉우리봉사단, 소원정사가 함께 진행하는 ‘도담도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대피해 아동 쉼터 등 6개 기관 아동 30여명이 참여했다.

기존처럼 음식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아이들이 선택하고 체험하는 형태로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이들은 각자 ‘닉네임’도 정했다.

‘피카츄’, ‘진주반짝이’, ‘똥그리’ 등 이름 대신 닉네임이 호명될 때마다 여기저기서 손이 번쩍 올라왔고, 아이들은 준비된 인형과 간식 봉투를 받아 들며 활짝 웃었다.

닉네임 똥그리(18)양은 “어린이날 행사에 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선물도 받아 기쁘다”며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샌드위치는 봉우리 봉사단이 준비했다. ‘봉사하는 우리들’이라는 뜻의 이 단체는 직업이 서로 다른 20여명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돼 있으며, 평소에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봉우리 단원 임지원 자비신행회 이사는 “2020년부터 매월 아이들이 있는 시설에 샌드위치를 전달해 왔는데, 이렇게 만나서 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걱정도 많았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진모영(55) 감독도 봉사자로 참여했다.

진 감독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바로 참여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도 의미가 크다”며 “작은 힘이 모이면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만큼 이런 활동이 더 많아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아이들에게 직접 마련한 인형과 선물을 나눠준 도계스님(77)은 “학대피해 아이들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안타깝다”며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담도담 프로그램은 2022년부터 4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 200여명의 후원자가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도계스님은 향후 과자 세트 지원과 학교 방문 나눔 등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도계스님은 “아이들이 맛있게 먹고 웃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큰 보람”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따뜻한 기억을 쌓을 수 있도록 나눔을 계속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윤찬웅 기자

전남대 총동창회 회장단, 전남대병원에 6천만원 기탁

새병원 지원…류혜경 회장 등 4명 전달식
“지역 보건의료 발전 위해 필요 깊이 동감”

전남대 총동창회 회장단이 모교 병원의 숙원사업인 새병원 건립에 힘을 보탰다.

30일 전남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최근 병원 행정동 2층 접견실에서 정신 원장과 류혜경 전남대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병원 벽돌쌓기 특별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식에는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회장단 4명이 참여해 총 6천만원의 발전후원금을 전달했다. 류혜경 총동창회장(서광병원 병원장·학교법인 인성학원 이사장·**사진 왼쪽서 다섯 번째**)이 3천만원, 오형석 총동창회 이사장(탑솔라그룹 회장·**사진 왼쪽서 여섯 번째**)이 2천만원, 최희동 총동창회 수석상임부회장(광주공고장학재단 이사장·**사진 왼쪽서 일곱 번째**)이 500만원, 김제성 총동창회 수석상임부회장(한남유리 대표·**사진 왼쪽서 여덟 번째**)이 500만원을 각각 기탁했다.

류혜경 총동창회장은 “의료 현장의 전문가로서 전남대병원의 새병원 건립이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얼마나 절실한지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모교 병원이 지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동문들의 마음이 새병원의 든든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신 원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미래 의료 환경 구축을 위해 큰 결단을 내려주신 류혜경 회장님과 회장단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보내주신 소중한 기금은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질 최첨단 새병원을 건립하는 데 귀하게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전남대 총동창회가 추진 중인 ‘새병원 벽돌쌓기’ 캠페인은 노후화 된 병원 시설을 현대화하고 스마트 의료 시스템을 갖춘 새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동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어지고 있다. /기수희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활동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는 “최근 영광 대마행정복지센터에서 영광경찰서, 영광군과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전남본부는 실버카 20여대의 뒷바퀴에 조명등을 설치하고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통안전교육에서는 고령자 눈높이에 맞춰 ▲안전한 보행 수칙 ▲야간 교통사고 예방법 ▲실버카 안전운전 방법 등이 안내됐다.

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야광지팡이와 야광반사키링, 공단에서 직접 제작한 LED 생명불 등도 배포했다.

김행섭 광주전남본부장은 “전남 고령자 비율이 26.7%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다인 만큼, 고령자 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형우 기자

광주전남혈액원, 나주 남평중서 헌혈교육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은 지난 29일 나주 남평중학교를 방문해 ‘찾아가는 헌혈교육’을 실시했다.

광주전남혈액원은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의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찾아가는 헌혈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교육은 올해 들어 8번째였다.

교육은 남평중 1학년 학생 90명을 대상으로 헌혈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다가오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1980년 5월 당시 박금희 열사를 비롯한 시민들의 헌혈 참여 역사도 소개했다.

교육을 신청한 이미선 남평중 교사는 “자라나는 학생들이 헌혈을 일찍 접하고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른 학교에도 헌혈교육을 적극 추천한다”고 말했다.

박진성 광주전남혈액원장은 “앞으로도 시·군·구 교육청, 학교 등 관계자들과 힘을 합쳐 광주·전남 내 건전한 헌혈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연상 기자

동강대RISE사업단-한국알프스 “모빌리티 인재 양성”

동강대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청년 취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에 나선다.

30일 동강대에 따르면 RISE사업단은 최근 본관 1층 장원홀에서 한국알프스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 핵심 인재 양성 및 취업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한국알프스는 광주 하남산단을 기반으로 자동차 전자장치 부품과 첨단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지역 대표 글로벌 제조기업으로, 최근 연구개발(R&D) 확대와 생산시설 증설을 통해 미래차 핵심부품 분야 경쟁력을 강화했다.

동강대는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설계해 학생들의 직무 적합성을 높이고, 기업 탐방 및 실습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취업 연계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박용현 한국알프스 상무는 “동강대와 협력을 통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청년들이 광주에 정착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위형도 RISE사업단장은 “학생들이 지역 전략산업 현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실무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여수경찰-오일허브코리아, 가정폭력 위기가정 지원

여수경찰서는 30일 오일허브코리아와 함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오일허브코리아는 여수경찰 ‘위더스협의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2021년부터 분기별 통합솔루션 사례 회의를 통해 범죄 피해자 11명에게 약 3천900만원의 후원금을 꾸준히 지원해 오고 있다.

이번 후원 대상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정폭력 피해 한부모 위기가정으로, 기초생활 수급 등 경제적·정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부닥친 이들 가정이 다시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전달된 기부금은 전액 생계비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장원석 경찰서장은 “민·관이 힘을 모아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에 앞장서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범죄 취약 계층을 위한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박지원 호남생물자원관 연구원
韓자원식물학회 ‘우수 발표상’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최근 세종수목원에서 열린 제26회 한국자원식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자원관 소속 박지원(**사진**) 전임연구원이 ‘우수 발표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기후위기 시대, 자원식물의 가치 제고와 도심 속 확산’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 박 연구원은 실론계피나무 유래 천연물의 항염 효과를 세포실험 수준에서 검증하고 작용 기전(메커니즘)을 규명한 연구 결과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연구 성과는 천연물 기반 생물자원의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함으로써 향후 의약·바이오 산업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과 지속 가능한 생물자원 이용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지원 연구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기존 의약품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국내 생물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가치 증대를 위한 연구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정상기업, 지역 아동에 어린이날 선물 전달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30일 “정상기업㈜이 어린이날을 맞아 지역 아동들에게 과자 선물세트 2천892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나주 소재 토목시설물 건설업체인 정상기업은 2022년부터 올해로 5년째 어린이날을 맞아 지역 아동들을 위한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전달된 과자 선물세트 2천892개는 광주 지역내 아동양육시설 18곳에 전달됐다.

이정오 정상기업 대표는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에게 작은 기쁨을 전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연상 기자

광주 북부소방, ‘폐작물 파쇄의 날’ 운영

광주 북부소방서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커짐에 따라 산림 인접 마을을 대상으로 ‘소방과 함께하는 폐작물 파쇄의 날’을 운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논·밭두렁에서 발생하는 폐농작물 소각이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북부소방서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업해 파쇄기와 전문 인력을 지원받아 현장에서 폐작물을 파쇄 처리했다. /윤찬웅 기자

행사

▲제47회 담양군민의날 기념식(담양군 이승모 행정과장)=5월3일(일) 오후 2시 담양종합체육관 축제장 주무대, 담양군 담양읍 죽녹원로 134. 이용 안내 : 061-380-3172.

▲제25회 담양 대나무 축제&빛나라 빛나, 대나무!&대나무가 건네는 희망의 메시지(담양군 김은영 관광과장)=5월1-5일 담양종합체육관, 담양군 담양읍 죽녹원로 134, 개막식 5월1일(금) 오후 5시. 이용 안내 : 061-380-3152.

부음

▲이추자씨 별세, 김경묵(KIA 타이거즈 투수)씨 조모상=발인 2일(토)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7호(대구시 중구 동덕로 130, 삼덕동). 053-200-6464.